

#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학급·학교 규모에 관한 시론적 연구\*

민부자(閔富子)\*\*

홍후조(洪厚祚)\*\*\*

## 논문 요약

이 연구는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의 구성영역인 교과 교육과정과 교과의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과정의 이수방식인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교 및 학급의 적정규모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논의한 것이다.

교육과정의 구성영역과 관련하여 교과 교육과정을 위한 활동에서는 학급당 학생수의 적정규모가 중요하지만, 교과의 교육과정의 활동에서는 학교당 학생수의 적정규모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후자의 경우 공교육의 목표는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있고, 이를 위한 각종 집단 및 단체 활동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의 이수방식과 관련하여 초·중학교에 해당하는 공통 교육과정(2009 개정 교육과정 기준)은 기초·기본 교육의 책임지도라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각' 학교가 교육목표 달성 등에 적합하도록 일정 규모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반면, 고교의 선택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의 진로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려면 거대규모가 되어야 가능한데, 거대 규모는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각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모두 제공하기 어렵다. 특히, 특수한 요구인 예체능 및 직업 과정 등을 모든 학교에 다 개설하기 어려우므로 학교 '간' 역할분담과 협력이 필요하고, 결국 지역내 협력하는 여러 학교들의 전체 규모가 적정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주요어 : 적정규모, 학교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교사당 학생수, 교과 교육과정, 교과의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선택 교육과정

\* 이 논문은 한국교육개발원(2010) '학교규모에 따른 교육격차해소 및 교육환경 연구'에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제1저자.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교수

## I. 서론

‘교육’이란 한 사회가 구성원들의 학습을 사회적으로 관리해가는 방식을 말하며, 학교는 그러한 학습 관리 방식의 근대 사회적 특수성을 반영한 한 가지 사회 장치라고 할 수 있다(한승희, 2004). 또한 공공성 있는 교육으로서 학교는 학습자의 지적인 측면을 성장시키는 집단 지성의 연습장이면서 집단적 유대감을 통해 협동적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학습자로 하여금 이러한 역할을 향상시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확대하는 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학교교육에 대해 홍후조(2011)는 기초·기본 교육에 대해서 모든 국민은 어떠한 차이(성, 연령, 종교, 계층, 지역, 인종, 언어, 국적 등)에도 불구하고 균등하게(출발, 과정, 결과 모두) 책임 교육되어야 하고, 그 수준을 넘어서는 심화·특수·전문교육은 차이(학생의 적성과 사회적 진로)에 따라 알맞게 맞춤형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교육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학교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의 과정을 인도하며, 교육의 결과에 대한 질을 담보하고, 평가를 위한 기준의 역할을 한다. 교육과정에는 한 사회가 학습자를 교육하여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 학교급별 교육 목표, 학교급별 편제의 내용과 이를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기 위한 중점 방향이 담겨 있다.

한편, ‘규모’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물이나 현상의 크기나 범위’로 정의하고 있다. ‘학급 규모’는 한 학급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한 학급에서 수업 활동을 하는 ‘학급당 학생수’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 학급규모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에서는 학급당 학생수 대신에 ‘교사당 학생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의 ‘학급당 학생수’를 학급규모로 보며, ‘학교규모’는 학교당 학급수로 이해한다.

이러한 규모는 보통 ‘경제 용어’로 많이 활용된다. ‘규모의 경제’라고 하면, 각종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이익이 증가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가 학급규모나 학교규모의 적정성을 거론하는 것은 기초·기본 교육을 교육복지 차원에서 책임 있게 실행하고, 심화·전문·특수 교육을 맞춤형으로 실시하려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나치게 거대한 규모나 지나치게 작은 규모의 학교는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가 집중되는 수도권 지역에는 과밀학급, 거대학교가 증가하며, 반대로 농산어촌은 학생수 감소 및 도시지역 이주로 인하여 학교의 소규모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인구 밀집이 계속되는 경기도는 교육청에서 거대규모, 과밀학급을 분할하여 적정규모의 혁신 학교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과부에서는 과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의 현황과 관련하여 양현오 외(2010)의 연구에 따르면 농산어촌(읍, 면, 도서벽지)의 학생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1,765개교로 전체 농산어촌 학교(4,972개교)의 3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 지역 학생이 읍 지역으로 이탈하여 면 지역 학교의 소규모화·공동화가 지속되

는 등 앞으로 읍면간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에서는 복식수업(복수학년이 1학급 구성)이나 비전공교사(상치교사)에 의한 수업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2009년 기준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5,829개교 중 420개교 학교(7.2%)가 복식수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규모의 문제로 인해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학교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은 구성영역에서 보면 교과와 교과외 활동(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들은 초·중학교에서는 의무적인 공통 교육과정으로 제공되고, 고교에서는 서로 다른 것들 중에 골라서 이수해도 되는 선택 교육과정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교과 교육과정은 학교 수업에서 가장 많은 분량과 비중을 차지하며, 국어, 수학, 사회 교과와 같이 특정한 성격, 목표, 내용 체계, 탐구 방식 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수학, 영어와 같은 교과는 교육 내용의 위계가 비교적 분명하여 학습자의 성취 정도에 따라 수준별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으나 일부 교과는 학습자의 성취 정도에 따른 위계가 아닌, 관심과 흥미에 따른 영역을 구분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과도 있다. 교과외 교육과정으로 제공되는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에 비해 전인적, 창의적, 융통성 있는 활동이 가능한 영역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발상과 창의력 및 소질을 계발하고, 공동체 문화를 구축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를 학교 및 학급규모와 연계해 보면, 교과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교당이든 급당이든 학생당이든 교원 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교과외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학생수가 적절한 규모가 되어야 각종 행사 등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편, 공통 교육과정은 모든 학습자 집단에게 공통적·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이 교육과정은 학교교육 프로그램의 전체성, 균형성, 유기적 통일성 및 교육과정의 사회적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비해 선택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서로 다른 능력, 소질 및 적성에 따라 학교, 과정, 교과,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공통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시기와 선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시기의 학교 및 학급규모는 다르게 전개될 것이다.

이 글은 학교가 일정한 적정규모를 유지할 때 공교육의 역할을 다할 수 있고, 또한 이점도 크다는 것을 교육과정 측면에서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 II. 선행 연구 개관

적정한 학교 및 학급규모에 대한 선행연구는 교육과정 운영, 학생 생활 지도, 교육 재정 운영, 학교 경영, 학습자의 학업성취도와 관련하여 연구된 바 있다.

공은배 외(1984)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를 기초로 적정 학교규모와 적정 학급규모를 탐색하였는데, 적정 학급규모를 설정하기 위해 분석준거를 교육효과와 극대화, 교사 직무수행의 적정화,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 측면으로 보고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급당 학생수가 50명이 넘는 대규모 학급은 교사들이 인지한 교육효과 측면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효과와 교수·학습 활동에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의 직무수행 측면에서는 학생 통솔과 업무 부담에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 측면에서 학생당 학교 교육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지역별 학급규모를 제시한 바 있다.

김영철 외(2001)는 학급규모가 교육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특히 교육효과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학급 운영 측면과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학급규모와 학업성취도 결과에 대한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바와는 달리 소규모 학급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기존의 학급 상황에서 조사된 학업성취도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점, 학업성취도에 대한 영향력은 개인 변인과 가정 변인이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학급 운영 측면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학급일수록 수업이 능률적이 되고 교사와 학생의 친숙도가 높아지며 학급 관리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강호감 외(2003)는 학교규모와 관련하여 일선학교의 학교장과 교사들을 상대로 1) 학교규모와 교육과정 운영과의 관계 2) 학교규모와 학업성취도와와의 관계 3) 학교규모와 생활지도와의 관계 4) 학교규모와 학교경영 및 교사업무부담 간의 관계 5) 학교규모와 시설 및 재정과의 관계 등을 조사하였는데, 첫째, 학교규모가 너무 '큰' 경우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학교장들은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학생 생활 지도 및 인성 교육을, 교사들은 학생의 안전, 생활 지도와 인성교육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였다. 둘째, 학교규모와 관련해서는 현재 학교규모에 따라 선호하는 학급규모가 각기 달랐으며, 셋째, 생활지도에서의 문제점으로 초등학교는 책임의식 결여, 중학교는 책임의식 결여와 이기적 경쟁심, 고등학교는 책임의식 결여와 소속감 결여를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기하였다. 넷째, 교사 업무 부담을 고려한 적정 학급수로 초등학교는 25-36학급을, 중학교는 21-27학급을, 고등학교는 24-30학급을 선호하였다. 다섯째, 시설과 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정한 학생수에 대해 초등학교는 901명 이상의 과대학교를, 중학교는 751명 이상의 과대학교를, 일반계 고등학교는 691-900명의 중규모 학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학교교육에서 한 학급의 규모와 한 학교의 규모를 논할 때, 교육이 집단교육임을 감안하여 학교나 학급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아질 때 교육활동은 비공식화되기 쉽고 교육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장수명(2003)은 2001년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학급규모 축소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시설비에 대한 막대한 투자에 비해 적정수의 교사 확보와 교사의 전문성 고양이라

는 측면에서의 투자와 배려는 충분하지 못하여 학급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도시지역의 학급규모가 감축됨에 따라 지방의 교사들이 대도시로 유입되면서 농촌지역의 교사 부족 현상은 오히려 더 심해졌으며, 사업이 학급규모 감축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짐에 따라 실제 학급규모가 OECD 수준이나 그 이하로 줄어든 지역에서 소규모 학급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과감한 교수-학습 방법의 적용과 이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학급규모 축소라는 긍정적 성과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홍후조 외(2003)도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7차 교육과정의 운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교육과정 운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며 학교당 학급수보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또,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감축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업성취 격차가 큰 수학, 영어, 과학 등에서 학생수 감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최준렬 외(2007)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실태 분석과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적정'의 의미는 학급이나 학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 많으며, 특히 소규모 학교에서는 규모의 적정화보다는 '최소의 규모'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즉, 농산어촌의 경우 적정규모를 적용할 때 학생수만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농산어촌의 학교는 지역사회에서 교육이외에도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농산어촌의 학교 통폐합과 관련하여 지역과 여건을 고려하는 과정이 적정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보며, 적정의 의미를 '규모의 적정화', '가르치는 방법의 적정화', '의미의 적정화'로 구분하였다.

정일환 등(2010)은 학생수가 적은 농산어촌에서 운영되고 있는 통합운영학교(학교급이 다른 2개 이상의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학교 규모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지나친 소규모 학교 및 대규모 학교의 문제점으로, 우선 학교규모가 적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체 생활의 문제로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한 학급만으로 운영되므로 학생들의 사회성을 기르기 어렵고, 교육활동 및 학습지도상의 문제로 체육대회, 동아리 활동 등 단체활동 등에서 다양한 편성이 어려우며, 중학교의 경우는 교원수가 학급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교원이 다른 과목을 담당하거나 한 사람의 교과담임이 전학년을 지도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음, 학교규모가 지나치게 큰 경우 집단생활상의 문제로 동급생간 또는 다른 학년의 학생간, 교원과 보호자간의 교류와 서로의 이해가 희박하게 되고, 교육활동 및 학습지도상의 문제점으로 체육대회, 동아리활동 등 단체 활동에서의 학습계획 수립, 장소 확보 등이 어려우며, 학교운영상의 문제로 여유교실을 확보하기 어려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특별활동 등을 위하여 사용할 공간이 부족하게 되어 교육활동이 제한을 받게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교원수가 많기 때문에 교원 상호간의 조정과 연계협력이 충분하지 않고, 학

교 교육목표와 교육활동의 일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한편, 최근 교육 선진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핀란드의 경우 학급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데 수업은 일반적으로 한 학급의 학생수가 24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외국어 수업일 경우 학급 정원은 반으로 줄어든다. 학력이 다양하므로 적은 수의 학급을 지향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상황과 학교에 배치된 교사와 교직원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원을 25-26명으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 따라서 1, 2학년은 20명, 3, 4학년은 30명으로 늘리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이는 모두 학생들을 위해서이며 교사들이 가르치기 쉬운 관점에서 실행 가능한 학급 편성을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후쿠다 세이지 저, 나성은·공영태 역, 2008). 실제 통계상으로는 학급당 학생수가 평균 16명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보다 학급당 학생수가 훨씬 적은 것은 물론이고 학습자의 발달 정도, 교육내용에 따라 학생수를 융통성있게 배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첫째 유형은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과대 규모의 학급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장 교사들의 의견 조사를 통해 적정규모를 통계적으로 산출하고자 한 것이다. 둘째 유형은 2001년부터 추진된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따라 재정적 지원에 의해 학급당 학생수가 감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셋째 유형은 농산어촌에서와 같이 학생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이미 소규모 학급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교육 효과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소규모 학급 및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적절한 규모를 구안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의 선행 연구들은 적정 학급규모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의견 조사, 교육 재정 지원 측면에서의 교육 효과, 소규모학교 운영의 개선 방안 등에 대한 것으로, 실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용 및 운영 방법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구성영역(교과, 교과외) 및 이수방식(필수, 선택)과 관련하여 학교 및 학급의 규모를 논의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 및 학급의 '적정규모'를 교육과정의 구성영역과 이수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Ⅲ. 교육과정의 구성영역(교과·교과외)과 학교규모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 편제는 크게 교과 교육과정과 교과외 교육과정(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나뉘며, 이를 이수하는 방식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3학년의 선택 교육과정으로 구분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sup>1)</sup> 즉, 학생들이 학교교육에서 경험하게 될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은 교과와 교과외 활동

1) 2011년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 초등

영역이며, 이를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따라 공통 혹은 선택으로 이수하게 하는 구조이다.

학교 교육에서는 교과 및 교과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인지적·정의적·신체적 측면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소질과 적성,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여기에는 공통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대표되는 교과외 교육과정, 나아가 각 교과(군)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문예백일장, 시화전, 연극대회, 수학경시대회, 영어 말하기대회, 과학실험경진대회, 사회 문제 관련 행사(웅변대회, 공익광고 경진, 모의유엔총회), 발명품 경진대회, 운동회, 체육대회(교내, 학교간), 예술경연대회(미술, 디자인, 음악 합창, 교내외 대회) 등 학급 수준·학년 수준·학교 수준·학교간 수준으로 전개되는 다양한 대회 및 행사도 포함된다.

### 1. 교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교과(군)는 교육과정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제공하며 사회와 학습자의 요구를 담아서 전달하는 주요 수단이 된다. 김수천(2004)에 의하면 학교는 전통적으로 교과를 가르치는 일에 주력해 왔고 그것은 현재,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적절한 학생 수를 예시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초·중등학교 교과 교육과정 운영시 적정한 학생수(예시)

교과(군)	교사의 강의식 수업	학생 참여 활동 수업
국어	15~25명	· 토의·토론 : 4-8명, 2-3개 모듈/ 최소 8명 · 역할극 발표 : 4-8명, 2-3개 모듈/ 최소 8명
사회/도덕		· 조사활동 : 4-6명, 2-3개 모듈/ 최소 8명 · 모의 의회 활동 : 최소 10명 이상 · 역할극 발표 : 4-8명, 2-3개 모듈/ 최소 8명
수학		· 짝활동, 모듈활동 : 2-4명, 2-3개 모듈/ 최소 4명
과학/실과(기·가)		· 실험활동 : 4-6명, 2-3개 모듈/ 최소 8명 · 실습, 실기 : 4-6명, 2-3개 모듈/ 최소 8명
음악/미술		· 중창 : 파트별 1명 이상, 최소 6-10명 · 합주 : 악기별 1명 이상, 최소 6-10명 · 모듈활동 : 4명 이상, 2-3개 모듈/ 최소 8명
체육		· 짝활동, 모듈활동 : 2-4명, 2-3개 모듈/ 최소 4명 · 구기활동 : 각 활동별 소요 인원/ 축구 11명, 2개 팀-최소 22명
영어		· 짝활동, 모듈활동 : 최소 2-4명, 2-3개 모듈/ 최소 4명

1-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초등 3-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초·중등학교의 학급에서 교사가 강의식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학급당 적정 학생수는 교과와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15-25명 정도로 예시할 수 있다. 이는 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러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 내용이다(김영철 외: 2001, 홍후조 외: 2003, 최준렬 외: 2007). 이에 비해 학생 참여 활동의 수업인 경우 교과 및 활동 내용에 따라 적정 학생수가 다르게 나타난다. 국어 교과의 토의·토론 학습인 경우 논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대표들이 최소한 2명씩은 있어야 하고, 음악 교과에서 중창이나 합주를 할 경우 파트별, 악기별로 최소 인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체육 교과에서는 짝 활동이나 모둠활동의 경우 최소 2-4명이 참여하지만, 구기활동으로 축구를 하는 경우 각 팀별 11명, 최소 22명의 학생이 배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과는 주로 단위학급 내에서 담임교사, 혹은 지도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단위학급의 학생수가 어느 정도인가가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학급별 학생수 및 교사 1인당 학생수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 기준 학교급별 학교수,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는 다음과 같다. 특기할 점은 최근 출산율 저하로 앞으로의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예정이라는 것이다(양현오 외(2010)).

<표 2> 우리나라의 학교급별 학교수,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2009년 기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고
학교수		5,829개교	3,106개교	2,225개교	
학생수		3,474,395명	2,006,972명	1,965,792명	
학급당 학생수	평균	27.8명	34.4명	34.2명	
	최고	31.2명(경기)	38.4명(인천)	37.2명(광주, 울산)	
	최저	22명(전남)	29.3명(전남)	28.6명(전남)	

\* 출처 : 양현오 외(2010). 내용 재구성.

둘째, 학급당 학생수는 해마다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데, 학급당 학생수를 OECD 내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 31.0명, 중학교 35.6명으로, 초등의 경우 다소 개선되었으나 중등의 경우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3> OECD 국가의 평균 학급당 학생수

(2007년 기준, 단위: 명)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OECD 평균
초등교육	31.0	28.2	22.6	22.1	23.1	24.6	21.4
전기 중등교육	35.6	33.2	24.3	24.7	24.3	22.6	23.9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09). OECD 교육지표.



셋째, 유초중학교의 학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수는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4> OECD 국가의 교원 1인당 학생수

(단위: 명)

구분	한국	일본	미국	핀란드	프랑스	OECD 평균
유치원	18.7	16.8	13.8	11.4	19.2	14.3
초등학교	25.6	19.0	14.6	15.0	19.7	16.0
중학교	20.5	14.8	14.7	9.9	14.3	13.2
고등학교	16.2	12.5	15.6	15.9	9.6	12.5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09). OECD 교육지표.

이상의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계속하여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 교육 선진국에 비하면 많은 편이다. 학교교육, 특히 교과 교육과정의 일정한 효과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혹은 교사당 학생수가 중요하다고 제시되며, 학급당 학생수는 일반적으로 20±5명 정도가, 교사당 학생수는 15±5명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는 지난 수년간 형편이 좋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적정규모와 거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유의할 점은 학급당 학생수나 교사당 학생수는 어디까지나 평균 개념이므로, 개별 학교의 형편은 이보다 더 규모가 크거나 더 적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교육을 하기 위한 최소(하한)치와 최대(상한)치를 지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2. 교과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적정규모

교과외 교육과정의 협의의 의미는 제7차 및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을 의미하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의미한다. 하지만 보다 광의의 의미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교육과정 외에 다양한 행사 활동, 학년 및 학교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행사 등도 포함된다. 유광찬 외(2009)에 의하면, 교과외 교육과정의 성격은 교과 교육과정과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고, 개별적인 활동보다는 집단을 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꾀하는데 중점을 두며,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에 바탕을 두고, 그 운영에 있어 융통성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다.

학교 현장에서 교과외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적당한 학생 수를 예시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실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하위 영역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동, 진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율활동 속에 학교의 주요 행사 활동이나 학교 특색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행사활동의 영역이 다양하고 비중도 큰 편이므로 아래에서는 구분하여 적정한 참여 학생수를 제시한다.

<표 5> 초·중등학교 교과외 교육과정 운영시 적정한 학생수(예시)

구분	주요 활동 및 행사
창의적 체험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활동 : 학급, 학년, 학교, 여러 학교 간 경진대회 등을 고려하면 다양한 하위 영역이 존재하여 적정한 학생 수를 예시하기 어려움.</li> <li>· 동아리 활동 : 4-5명, 2-3개 동아리/ 최소 8명</li> <li>· 봉사활동 : 1인 이상 가능</li> <li>· 진로 활동 : 진로체험 등은 1인 이상 가능, 진로교육 등은 적정규모 이상 가능</li> </ul>
학년·학교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극 경연 대회 : 학급당 10명, 3-4개 학급/ 최소 30명</li> <li>· 토의·토론 대회 : 학급당 4-6명, 3-4개 학급/ 최소 12명</li> <li>· 시화전·문예백일장 : 학급당 3-4명, 3-4개 학급/ 최소 참여 인원 10명</li> <li>· 민족정체성확립 관련 대회(글짓기, 주장발표, 그리기 등) 학급당 2-3명, 3-4개 학급</li> <li>· 각종 학력평가대회 : 학급당 5-6명, 최소 2-3개 학급 이상/ 최소 참여 인원 10명</li> <li>· 모의 선거·유엔 총회 활동 : 최소 참여 인원 30명</li> <li>·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 학급당 3-4명, 최소 2개 학급 이상/ 최소 참여인원 6명</li> <li>· 중창·합창·합주 대회 : 합창, 합주 대회일 경우 최소 20명 이상, 2-3개 학급 이상 / 최소 참여 인원 40명</li> <li>· 각종 그리기 대회 : 학급당 1-2명, 최소 2-3개 학급 이상</li> <li>· 운동회 : 프로그램별 10-100명/ 청·백 구분하면 학년당 최소 2개 반 이상</li> <li>· 육상대회 : 경기 종류별 최소 3-4명 이상, 10개 종목 이상/ 최소 참여 인원 30명</li> <li>· 골든벨 대회·영어 듣기 대회 : 학급 대표 1-2명, 최소 2-3개 반 이상</li> <li>· 정보올림피아드 : 학급당 1-2명, 최소 2-3개 반 이상</li> <li>· 현장학습·수학여행·수련활동 등 : 한 학급 30명 이상(차량 대절시 적정 인원이 요구됨)</li> <li>· 작품전시회 : 작품의 종류에 따라 최소 4-5명 이상</li> <li>· 학예발표회 : 프로그램별 5-10명, 최소 5-6개 프로그램/ 최소 참여 인원 25명 등</li> </ul>

교과외 교육과정에서 동아리 활동의 경우 학급의 범위를 넘어서 적성과 흥미가 비슷한 학생들이 모여 동아리를 조직하므로 참여 인원이나 동아리 수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학년이나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사도 참여 학생이 일정 수 이상 되어야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교의 시설과 설비를 넘어 이루어지는 현장학습·수학여행·수련활동 등은 차량을 대절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적정 인원이 되어야 차량 대절, 현장학습 운영 등이 무리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교과외 교육과정은 단위학급보다는 학년,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과외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규모(학교의 학급수, 학교의 학생수)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과외 활동의 원활한 운영에 영향을 주는 학교규모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학교규모 현황을 살펴보면 특별시·광역시 등의 대도시는 지나친 과밀학급, 거대학교가 분포하고 있으며, 농산어촌에는 학생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1,700여 개 이상으로 규모의 양극화를 보이는 편이다. 정상적인 분포라면 적정규모가 대다수이고, 거대와 과소 규모는 그 수가 적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생수에 따른 학교수를 파악한 결과, 학교당 적정한 학생수로 알려진 500±200명 수준의 학교는 초등의 경우 전체 학교수의 23.7%, 중학교는 22.4%, 고등학교는 19.7%밖에 되지 않는다. 즉, 적정규모보다 과소 규모나 과대 규모 학교의 비율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 학생수별 학교수 현황

(2009년 기준)

학생수 범위	60명 이하	61 -100	101 -150	151 -200	201 -250	251 -300	301 -400	401 -600	601 -800	801 -1000	1001 -1500	1501명 이상	계
초등학교 (비율)	1,032 (17.7)	611 (10.5)	326 (5.6)	172 (3.0)	124 (3.4)	99 (1.7)	217 (3.7)	550 (9.4)	618 (10.6)	646 (11.1)	1,135 (19.5)	299 (5.1)	5,829개 100%
학생수 범위	100명 이하	101 -150	151 -300	301 -450	451 -600	601 -750	751 -900	901 -1050	1051 -1200	1200 -1350	1351 -1500	1501명 이상	계
중학교 (비율)	609 (19.6)	162 (5.2)	243 (7.8)	181 (5.8)	203 (6.5)	315 (10.1)	359 (11.6)	368 (11.8)	289 (9.3)	182 (5.9)	111 (3.6)	84 (2.7)	3,106개 100%
일반 계고 (비율)	77 (5.0)	36 (2.3)	112 (7.3)	113 (7.4)	92 (6.0)	97 (6.3)	104 (6.8)	132 (8.6)	218 (14.2)	174 (11.3)	140 (9.1)	239 (15.6)	1,534개 100%

\* 출처 : 교육통계서비스(비율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음영 부분은 학교당 적정한 학생수로 알려진 500±200명 수준의 학교수를 나타냄.)

교과 교육과정은 학급당 학생수가 중요하지만 교과외 교육과정인 창의적 체험활동, 학년 및 학교 행사 등은 상대적으로 학교당 학급수, 즉 학교규모가 더 중요하다. 다만, 학급이나 학교의 과소, 적정, 과대 규모의 판단 준거는 교육목표의 달성,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 방법의 구현, 수행평가와 같은 교육평가의 실행 여부 등에 관련지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즉, 학교와 학급에서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교육의 효과성, 교육의 효율성, 교육기회의 접근성 등에 비출 때 유의미한 것이다. 다시 말해 교육과정 운영, 수업 운영의 효율과 효과를 고려하여 적정규모를 산출했을 때 기준점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 IV. 교육과정의 이수방식(공통·선택)과 학교규모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이수방식을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기이면서 공통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시기로, 고등학교는 학습자의 적성, 흥미, 능력, 진로에 따라 선택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시기로 구분하였다. 학교 교육이 담고 있는 내용으로서의 교과 교육과정과 교과의 교육과정만큼, 이수방식에 따른 공통 및 선택 교육과정에서의 적정규모 논의도 중요하다. 이 장에서는 초·중학교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의 선택 교육과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학교규모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1. 공통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적정규모

초등학교는 신체적·심리적으로 미분화된 상태의 학생들을 지도하는 기관으로, 초등교육은 기초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기초 탄탄형의 교육을 실천해야 하고,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확대를 목적으로 해야 하며, 세계화·정보화·다문화 시대에 대비하여 이해와 관용의 태도를 기르도록 해야 한다(민부자, 2009). 중학교 역시 학습자의 발달 단계로 보면 고등학교 교육에 비해 통합적이며, 사회 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학습해야 하는 시기이다. 즉, 초·중학교의 공통 교육과정기는 학습자의 기초·기본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시기로 학생들이 기초·기본이 되는 문해력과 수리력을 익혀 사회의 일원으로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에 이루어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의 5개 교과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학습자의 도달 정도를 기초미달, 기초학력, 보통학력, 우수학력의 4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그중 기초학력 미달의 경우 초 6은 1.2%~2.3%, 중 3은 4.6%~10.9%(수학에서의 미달 비율이 가장 높음), 고 1(일반계)은 2.3%~8.9%로 나타났다. 우수학력의 경우 초 6은 24.6%~69.4%, 중 3은 13.5%~26.1%, 고 1(일반계)은 5.4%~39.5%를 보였으며, 과목 간 차이가 심하게 나타났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교육평가학회, 2010).

여기서 짚어보아야 할 것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 반대로 우수학력의 비율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이는 중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기초·기본 교육이 비교적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등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마련해 놓은 기초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한편으로는 중등교육으로 올라갈수록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낮추기 위해 이전 단계에서 보다 확실하게 기초·기본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현재의 기초미달(100점 만점에 20점

미만)학생만 아니라 기초 수준 학생도 보충학습 대상으로 삼으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부진학생이 늘어나는 현상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핀란드에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핀란드에서는 보충학습지도 대상 학생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교급이 올라가면 학력 미도달을 만회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공통 교육과정을 학습하는 학습자 누구나 어떠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준에서 규정하는 기초·기본 학력을 완습할 수 있도록 교사, 학교 시설, 각종 지원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학교규모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공통 교육과정은 개인의 발전 뿐 아니라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도 큰 목적을 둔다. 학습자를 바람직한 사회 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협동·협력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오늘날에는 가정마다 자녀 수가 적기 때문에 가정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어린 자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초·중·고 학습자들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고 협동하는 활동에 서툴다. 학교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또래집단과 다양한 협력 활동, 협동 학습을 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함께 사고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거나, 실험·실습·실기 수업에 참여하고, 체육대회나 현장학습, 수련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배려와 협력의 태도를 길러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학교규모나 학급당 학생수가 너무 적은 경우 활동 자체를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 규모가 큰 학교라면 활동 시기에 참여 인원 등을 조정하여 체험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나 규모가 지나치게 작은 소규모 학교일 경우 참여 인원, 소요 비용 등을 맞추기 어려워 체험 활동이 어려워지게 되므로, 적정규모의 학교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규모 학교 중에는 학년당 1-2학급, 학급당 4-5명의 소규모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는 보통 규모, 혹은 대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같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학습자는 물론 교사 역시 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위해 요구되는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를 유지하는 정도의 학교는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적절할까? 과밀학급, 거대학교의 경우는 학습자의 주거지나 지역 발전 계획 등에 따라 학교를 분리·신설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반면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수평적 통합(같은 학교급을 통합)을 하거나 수직적 통합(다른 학교급을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만약 학급당 학생수가 너무 적거나 한 학년에 한 학급 운영도 어렵다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중학교의 경우도 교원 수급 문제가 있으므로 학교의 학년당 학급수가 너무 적으면 원활한 교육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 학교간 통폐합 혹은 통합운영이 필요하다. 이때 우선 고려할 사항으로는 학습자의 통학 시간이나 통학 거리 등이 있다.

실제 학생들의 통학 거리에 대한 연구 조사 중 양현오 외(2010)가 최근 2년간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역시의 개발 지역 내 초등학교의 통학 거리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개발지역 내 초등학교의 통학 거리 현황

지역	측정	통학 거리	비고
경기도	평균	0.89km	
	최소	0.5km	
	최대	2.6km	
인천광역시	최대	1.3km	

위 조사보고서의 연구자들은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0.5km~2.6km 범위를 갖기 때문에 지리적 한계, 교통로 등의 특성을 고려한 통학권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유입 인구가 많아 기존 학교 수가 많을 뿐 아니라 신설 학교 수도 많은 편이다. 위의 통학 거리는 학생수, 학교수가 많은 상황에서 발생한 측정치로, 이와 반대되는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혹은 통합 운영하는 경우 통학 거리는 불가피하게 멀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학교급에 따른 통학 거리의 예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제안 자료들은 학생들의 발달단계, 건강의 개인차, 체력발달의 개인차, 신체장애유무, 피로도, 통합수단 등을 고려하여 계산된 정확한 실증적 자료라고는 볼 수 없지만 고려할만한 요소로는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8> 학교급에 따른 학생들의 적절한 통학 시간과 통학 거리(예시)

학교급	통학 시간	통학 거리
유치원~초등 저·중학년	10~30분	~ 10km 이하
초등 고학년~중학교	30~60분	~ 20km 이하

우선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중학년의 경우는 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통학 시간은 10~30분 정도, 통학 거리는 5km 내로 생각한다.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학생들의 통학 시간은 30분~60분 정도, 통학 거리는 10km~20km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

위와 같이 공통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중학교에서 지나치게 학교규모가 작은 경우 통학 시간이나 통학 거리를 고려하여 통폐합이나 통합 운영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이유는 소규모 학교급만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나 학생들의 정서적 성장이라는 목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장수명(2003)의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평균 이하의 학교규모를 갖춘 학교들이 많은데 이들 학교가 교육적 성취를 제대로 얻으려면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이나

자질을 갖춘 교사의 배치 등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 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영국의 교육표준청이 1993-1994년에 594개의 중등종합학교와 1994-1995년에 1,173개 초등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급규모에 대한 연구를 보면 소규모 학급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에 도움을 주나 일단 기초학습능력이 배양된 후에는 소규모 학급보다 규모가 큰 학급에서 더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발견하였다(김영철 외: 2001, 38에서 재인용)는 것에서도 적정규모의 학급·학교가 유지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초·중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며 공통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고등학교의 선택 교육과정에 비해 단순하다. 공통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초·중학교는 모든 학교가 온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하므로 개별 학교 차원에서 규모의 적정화를 고려하여, 거대학교의 분리와 과소규모 학교의 통합이 진행되어야 한다. 즉, 공통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개별 학교 단위에서 개설할 일이므로, 개별 학교의 적정규모화가 중요하다.

## 2. 선택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적정규모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학습자가 동일한 교육 내용을 학습하고, 성취 기준에 도달하도록 지원해야 하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각 학교급은 교육과정을 정상 운영할 정도의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비해 선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는 학습자의 소질과 적성, 장래의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정이 개설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대부분에서는 문과와 이과 과정 정도를 개설한 상태이며 소수 학생의 특수한 요구에 해당하는 예술·체육 과정 등을 개설한 학교는 많지 않다. 고교생의 증가, 대학의 증가, 대학진학률의 증가, 사회의 직업의 분화, 학생들의 요구 다변화 등에 비추어 보면, 고교 교육과정, 대학입시 등은 현재보다 더 다양하게 분화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이미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고교 2, 3학년을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하였고,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선택과목을 통합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교 3년간 전체를 선택 교육과정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선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교육에 적절한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안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해 홍후조(2010)는 '진로 집중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진로 집중과정'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내용을 선정하여 학습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교육과정 실행에 있어 다른 학생과는 구별되는 자신만의 집중과정을 구성하게 하는 것이다. 다음은 초·중학교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의 진로 집중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고등학교	인	사	경	국	공1	공2	생	IT		예	술		집	중	체	육	
	인	문	사	회	과	학	기	술		진	로		중	과	정		
중학교		공	통	위	에		진	로		집	중	과	정				
초등학교	기초·기본 교육은 동일하게!																

[그림 1] 동일한 기초·기본 교육과 상이한 진로 집중과정

\* 출처 : 홍후조(2010b). p. 43.

진로 집중과정은 학습자들이 모두 한 곳으로 몰려 한두 가지 영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양상이 아니라 사회 속 구성원의 다양한 역할, 다양한 직업만큼이나 다양한 방향으로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도록 돕는 학습 구조가 된다. 학습 규모로 볼 때도 초·중학교와는 달리 고등학교의 진로별 집중과정은 동질 집단으로 구성되므로 다소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진로 집중과정’은 대도시의 경우 학교규모가 비교적 크고 교사 수급이 원활한 편이기 때문에 구현이 용이하다. 하지만 농어산촌에 작은 규모의 고등학교가 산재해 있는 경우 이러한 과정을 구현하기는 쉽지 않다. 고등학교 3개 학년을 다 합하여 10여 학급도 안 되는 작은 규모의 학교가 30학급과 비슷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것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효과가 높지 못할 것이다.

일례로, 경상북도 교육청 산하 23개 지역교육지원청에 소속된 일반계 및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를 조사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9> 경상북도 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지원청 소속의 일반계 및 전문계 고등학교의 현황

(2010. 4. 1. 기준)

교육청별	학교수(교)		학급수(개)		학생수(명)	
	일반계	전문계	일반계	전문계	일반계	전문계
포항	19	9	499	201	16,700	6,039
구미	14	7	369	173	13,670	5,644
경주	9	11	172	176	5,063	5,009
경산	9	2	176	33	6,079	989
안동	9	4	159	75	4,704	1,955
김천	7	3	127	41	4,184	1,114
영주	7	2	122	27	3,602	801



영천	5	4	73	36	2,107	1,033
상주	5	5	59	82	1,738	2,305
문경	4	2	63	29	1,878	686
청도	4	1	51	12	1,480	328
의성	4	4	34	30	886	681
칠곡	5	.	62	.	1,802	.
울진	2	3	31	27	830	664
성주	2	2	11	33	310	922
예천	5	.	44	.	1,068	.
군위	2	1	15	3	396	44
청송	3	3	9	22	183	509
영양	3	.	20	.	569	.
영덕	1	3	9	30	231	620
고령	1	2	15	16	443	233
봉화	2	2	15	12	394	254
울릉	.	1	.	9	.	181
합계	122	71	2,135	1,067	68,317	30,011

\* 출처 : 경상북도 교육청 홈페이지

학교규모로 볼 때, 포항, 구미, 경주, 경산, 안동, 김천시 등은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가 비교적 많아 학습자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진로 집중과정을 각 학교에서 개설하기 용이하나 군위, 영덕, 청송, 봉화, 고령군 등은 각 교육지원청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수가 500명을 넘지 않는 작은 규모의 학교로, 각 학교단위 및 군 내에서 만으로는 학습자의 진로 집중과정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울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전국 평균으로는 일반고 학생과 특성화고(전문계고) 학생의 비율이 75:25인데 반해, 경북 교육지원청의 몇몇 시·군에서는 특성화고(전문계고) 학생들이 일반고보다 2-3배가 많아, 향후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일반고로의 전환도 예측된다. 특성화된 직업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고교에서는 진학준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여 이런 지역에서는 학교간 협력이 일반고와 특성화고 사이에서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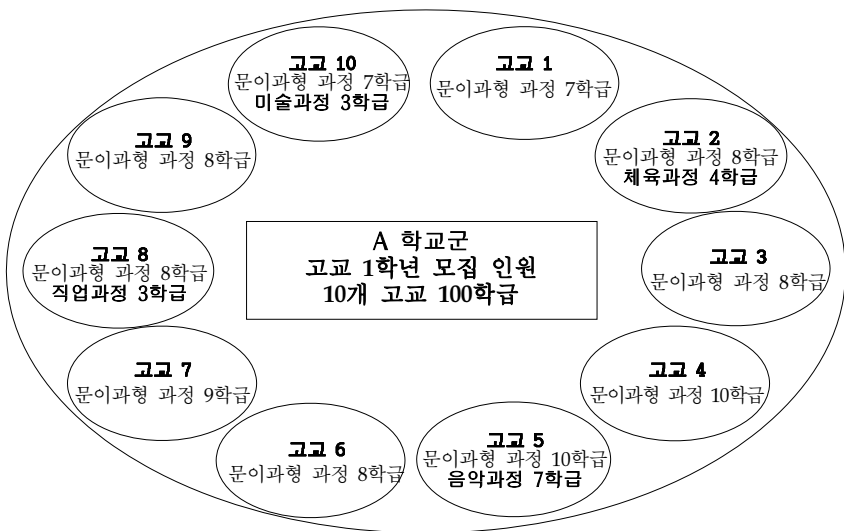
김정희·주동범(2009)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농어산촌 중등학교 교원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농어산촌의 소규모 학교는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보며, 이들 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교육과정을 획일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은 이 지역 학교의 교육과정을 더욱 파행적으로 운영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의 제공도 실제로는 어렵다고 토로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홍후조 외(2008)는 고교의 선택 교육과정, 진로 집중과정은 다양하고 복잡하여 하나의 학교에서 모두 개설해줄 수 없으므로 지역내 학교 간에 역할 분담하여 규모에 비례하여 개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고등학교 교육의 개념을 학교 차원이 아닌 지역 차원으로 확대시킬 것을 제안한 것이다. 연구에서는, 만약 선택 교육과정, 진로 집중과정을 운영해야 하는 고등학교에서 초·중학교와 같이 개별 학교단위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고집한다면 학교의 시설·설

비, 제한된 교원, 프로그램의 부재 등으로 결국 획일적인 문이과식 교육과정에 머물게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선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고교는 지역내 학교들이 협력하여 온전한(모든 종수의) 진로 집중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하므로 지역내 여러 학교 차원에서 규모를 적정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즉, 규모가 클수록 많은 수의 진로 집중과정을, 규모가 작을수록 적은 수의 진로 집중과정을 개설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간 역할 분담의 실질적인 모습은 어떠할까? 예를 들어 도시 지역인 A학교군의 10개 고등학교에서 1학년 100학급의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할 때, 소질과 적성, 흥미와 능력, 학업 진로 및 직업 진로가 각각 다른 학생들에게 단위학교 내에서 문과과정, 이과과정, 음악과정, 미술과정, 체육과정, 직업과정의 다양한 과정을 모두 개설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요구가 많은 문과와 이과과정은 10개 고등학교 모두에서 개설하고, 특수한 요구에 해당하는 예체능과정과 직업과정 등은 수요 조사를 통해 학급수를 산정하여 거점학교를 두어 개설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각 거점학교에는 특수한 과정과 관련된 교원을 배치하고,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전문성있게 집중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요구에 해당하는 문이과과정 학생들은 통학 시간, 통학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고등학교에 배치되어 학습할 수 있고, 예체능 및 직업과정 선택 학생들은 비록 통학 시간이나 통학 거리는 멀어도 자신이 희망하는 과정의 수업을 교원, 시설, 설비가 잘 갖추어진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홍후조 외, 2007).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고교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학교군내 학생의 전략적 배치 방안

\* 출처 : 홍후조 외(2007). p. 45.

즉, 초·중학교의 공통 교육과정은 모든 또는 각 학교가 일정한 적정규모를 갖추고 온전한 교육과정을 실현해야 하지만, 고교의 선택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요구가 매우 다양하므로 한 학교에서 모든 종류의 진로 집중과정을 구현할 수 없다. 고교의 선택 교육과정은 학교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고교의 선택 교육과정 실현에서는 개별 학교의 규모가 아닌, 지역내 여러 학교들이 일정한 학교구를 형성했을 때 모든 종류의 진로 집중과정을 구현할 수 있는 지역내 전체 학교들(학교구)의 규모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V. 결론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올려 수월성을 달성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법을 배워 사회적 존재로 성장하여 공동체 속에서 제구실을 하며,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있다. 공교육으로서 초·중등학교 교육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확대하는 사회적 사업이므로 일정한 규모를 갖춘 집단 활동을 기초로 한다. 특히 오늘날 가정의 인적·물적 측면에서 교육적 자원이 빈약한 편이므로 학교는 가정과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적 경험을 확대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학교규모·학급규모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학교 현황에 대해 제시하였다. 다양한 선행 연구를 통해 ‘학교규모’의 적정화는 경제적인 의미의 적정화, 교육과정 운영상의 적정화, 학교급에 따른 적정화, 교육재정이나 교원 수급에서의 적정화를 다루는 개념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의 국제 비교를 통해 볼 때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가 많은 편이며, 특히 최근 교육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핀란드와 비교할 때 여전히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초·중학교에 해당하는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선택 교육과정에서 ‘학교규모’는 어떠해야 하는지 논의하였다. 공통 교육과정은 초·중학교 의무교육기 교육이므로 기초·기본 교육의 책임지도라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각 학교가 온전한 모습과 규모를 갖추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반면, 고교의 선택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다양한 진로에 맞는 교육과정은 적정규모가 되어야 가능한데, 단위학교에서 이를 모두 감당하기는 어려우므로 학교 ‘간’ 협력하여 일반적인 문이과 과정 및 특수한 요구인 예체능 및 직업과정 등을 개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김영철 외(2001)의 지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무리 학급규모가 작더라도 학습자의 이질성이 클수록 학습 효과는 떨어지게 된다는 지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학급/교사/강좌당 학생수가 중요 ↓	학교당 학급수/학생수가 중요 ↓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 (진로 집중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특별활동·재량활동) 각종 학교 행사	← 다양한 종류의 진로 집중과정 운영을 위 해서는 지역내 전체 학교(학교구) 규모가 중요
중학교 초등학교	공통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특별활동·재량활동) 각종 학교 행사	
	교과 교육과정	교과의 교육과정	← 공통 교육과정을 운 영하므로 개별 학교 규모가 중요

[그림 3]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적정규모의 의미

학교의 규모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거대학교, 과밀학급으로는 교육의 효과성을 거두기 어렵다. 반면 농산어촌에는 과소규모 학교가 산재해 있어 여전히 교육하기가 어렵다. 거대학교, 과밀학급은 적정규모로 나누고, 과소학교는 통합을 통해 적정규모로 운영해야 한다. 특히 농산어촌은 출산을 저하, 도시로의 이동 등으로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학교 수도 줄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적절한 규모가 되어야 학생들의 교육도 가능해진다. 즉, 적정규모의 학교 유지가 중요하다.

여러 연구들을 통해 볼 때 이제 더 이상 학교당 적절한 학급수, 학급당 적절한 학생수에 대한 논의는 재론할 여지가 적다. 이에 대한 연구가 이미 충분하기도 하거니와 교육의 목적이나 학교 급에 따른 차이, 교육 활동의 종류나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방식 등이 다르면 적정한 규모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의 적정규모에 대해 논의할 때는 교육의 의도하는 바가 학습자 개인의 성장인지 사회의 유지와 발전인지, 각 학교급의 목표는 무엇인지, 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무엇인지와 관련한 적정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만약 교육의 목적이 학습자 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둔다면 학급의 학생수는 적을수록 유리할 것이다. 학급당 학생수나 학교당 학생수가 적을수록 좋다거나 작은 학교가 아름답다는 것은 특수한 목적을 띤 학교(상담과 치료를 위한 대안학교)에서는 맞을지 모르지만, 대다수 학생들이 재학하는 일반 학교는 적정규모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개인적인 사고가 발달하여 협동·협력하는 태도를 길러주고자 한다면 학교, 학급의 적정규모는 상대적으로 커져야 할 것이다. 학교급에서도 초등학교나 중학교와 같이 모든 국민이 공통의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면 학급당 학생수는 적되, 공통 교육과정에

서 요구하는 교육활동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정도의 학교규모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고등학교와 같이 학습자의 진로에 따른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안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는 단위학교가 아닌 학교군 전체를 하나의 큰 학교로 보아 적정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호감, 박영만, 송광용, 허숙, 송민영, 최선영 (2003). 초·중·고등학교 적정규모 학교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 교육청.
- 공은배, 한만길, 이해영 (1984). 학교·학급의 적정규모.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2009). OECD 교육지표.
- 김수천 (2004). **교육과정과 교과(개정판)**. 서울: 교육과학사.
- 김영철, 박영숙 (2001). 학급규모에 따른 교육효과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1-10.
- 김정희, 주동범 (2009). 농어촌 중등학교 교원들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인식 분석: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교육학회. 2009년 제150차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67-82.
- 민부자 (2009). 초등학교 교육과정 설계 모형 구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양현오, 김형돈, 이현정, 김형은, 정미연, 송상협 (2010). 학교규모의 적정화를 통한 교육격차해소 및 교육환경선진화.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2010-10.
- 유광찬, 박영무, 김인숙, 조영남, 김은정, 장인실, 장미옥, 송규영 (2009).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의 탐구(제3판)**. 서울: 교육과학사.
- 장수명 (2003). 학급규모의 교육재정·경제적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RR 2003-7.
- 정일환, 김병찬, 김상규, 주동범, 정성수, 홍후조, 김정희 (2010).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최준렬, 강대중 (2007).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실태 분석과 개선 방안.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교육평가학회(2010). 200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결과 분석 : 학력차이 요인 탐색과 대응방안. 연구자료 ORM 2010-14.
- 한승희 (2004). 학교 교육 : 미래의 조건. 한국교원대학교. **개교 2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움 -학교 교육 50년 반성과 전망-**. 183-224.
- 홍후조 (2010). 진로 집중과정의 요구·설계·구현·강화책에 관한 연구. 제22차 KUCU 학술세미나 발표 자료. 2010년 11월 20일.
- \_\_\_\_\_ (2011). **알기 쉬운 교육과정**. 서울: 학지사.
- 홍후조, 박인우, 장인실, 김종백 (2003).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교육과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책연구보고서.
- 홍후조, 강익수, 박하식, 백경선 (2007).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교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경기도교

육청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 07-02.

홍후조, 강익수, 백경선, 성열관 (2008). 교육과정 적정화 및 필수 교과 조정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년 교육과정 선진화 위탁과제 답신 보고.

후쿠다 세이지 저 / 나성은, 공영태 역 (2008). **경쟁에서 벗어나 세계 최고의 학력으로-핀란드 교육의 성공**. 서울: 북스힐.

경상북도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be.kr/main.fs>

교육통계서비스 <http://std.kedi.re.kr/index.jsp>

\* 논문접수 2011년 2월 7일 / 1차 심사 2011년 3월 7일 / 2차 심사 2011년 5월 13일 / 게재 승인 2011년 6월 1일

\* 민부자 :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사회과교육학으로 석사학위를,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방법(교육과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의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공동 번역서로 '교육과정 100년'이 있다.

\* e-mail : luckyrich2@empal.com

\* 홍후조 :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으로 석사학위를,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교육과정을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저서로는 '알기 쉬운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이해와 개발',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교육과정: 이론과 실제', '교육과정학 연구 50년' 등이 있다.

\* e-mail : educu@hanmail.net

Abstract

## A Study on the Optimal Size of School and Class for Effective Curricular Implementation

Min, BuJa\*

Hong, HooJo\*\*

This study aims to explore what the optimal size of school and classroom is for effective curricular practice and instruction, in the curriculum area of subject-based and extra curriculum or cross-curriculum, and in the curriculum practice of common-required curriculum and different-elective curriculum.

In relation to the area of curriculum, we should consider the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for the subject curriculum, but the number of students per school for the extra curriculum, because the aim of public education is to develop citizenship and social capital.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which provide basic education through common-required curriculum should meet the optimal size of each school for the completion of compulsory education. On the other hand, high school offer the different-elective curriculum according to learner's aptitude and career plan. But each high school has limited educational resources such as number of teachers and classrooms. Hence, high schools cannot offer whole range of diverse curricula, so schools in the same school district should collaborate in order to provide them. Thus the total size of collaborating high schools is important.

Key words : Optimal size of school, Optimal size of class, Number of students per school,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Subject curriculum, Extra curriculum, Common-required curriculum, Different-elective curriculum

---

\* Lecturer. Korea University

\*\* Professor. Korea University